“원효, 經論 통해 통일시기 포용책 제시”

名論名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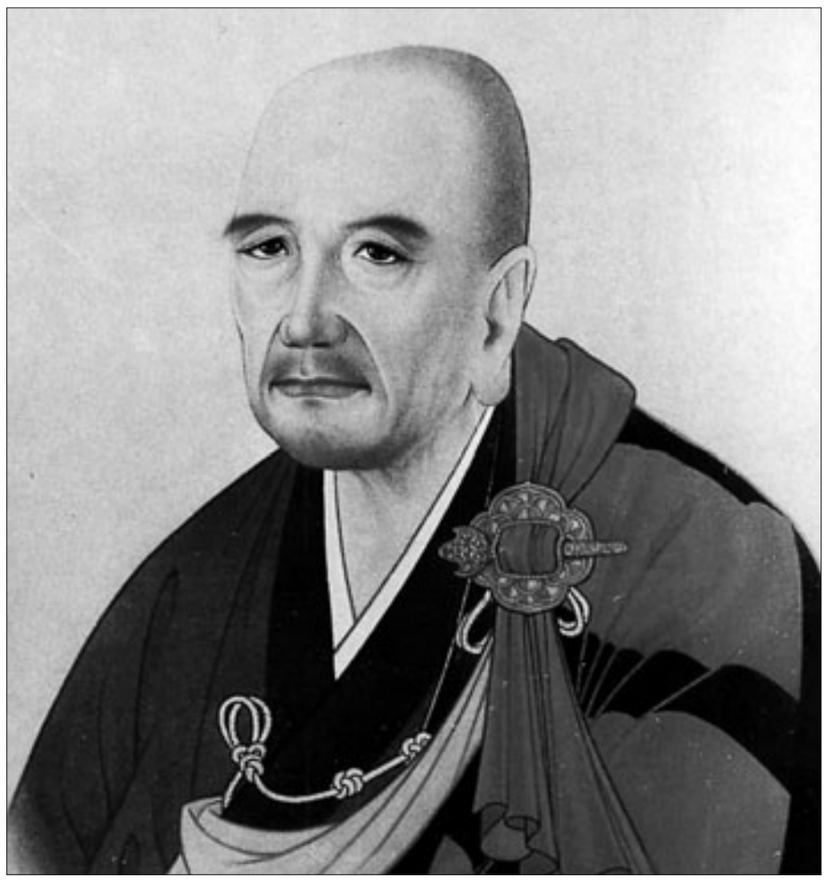


이병학의
〈역사 속의 원효와 금강삼매경론〉

한국불교사에서 원효 스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크다. 원효 탄신 1400주년을 맞아 관련 학술대회가 열리고 연구서들이 잇달아 나오는 이유에서도 이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이병학 우송고 교사는 최근 연구서 〈역사 속의 원효와 금강삼매경론〉을 발간했다.

그는 저서에서 원효의 대표작 〈금강삼매경론〉의 사상사적 위치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신라사회를 이해하려 한다. 특히 원효의 일승사상이 기층민을 포섭해 성불로 이끄려는 구상이었고, 무열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륜계 신라왕실의 등장과 신진 불교세력은 원효의 논리를 환영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눈길을 끈다.

〈역사 속의 원효와 금강삼매경론〉의 결론 부분을 발췌 인용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원효 스님의 진영. 한국불교사에서 원효 스님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비주류였던 원효 스님은 평등과 포용을 바탕으로 한 ‘이각원통’ 사상을 주창하며, 통일기 신라 사회의 통합 기제에 영향을 미쳤다.

원효는 신라 불교학의 총아이며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元曉)’은 매우 독보적이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불교를 수용하였다. 자연 신라는 후발국으로서 백제와 고구려가 점차 중국과 교유하며 새로운 불교학을 수용함에 일종의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가섭불 연좌석’ 설화로 대표되는 ‘신라 불국토설’은 이러한 고민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 항쟁기에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쟁수행을 도모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출신의 승려들이 신라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이때 원효가 신라 승려의 자부심으로서 ‘성화(聖化)’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라 불교학을 정점으로 사상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원효는 다양한 경전 주석을 통해 신라의 학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대중교화로 명성을 축적해가고 있었다. ‘원효’라는 명칭은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석가모니에 비견되는 호칭으로서 다른 승려와 차별성을 지닌다.

말하자면 석가모니와 동일한 출생담을 지닌 그가 ‘원효’라는 명칭을 통해 신라불교의 대표자로서 고구려·백제 출신의 승려들을 제어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등장한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명성을 더욱 수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효 교학의 원숙기에 성립된 그의 불교학 결정판이기도 하다. 전술한 그의 시대적 역할에 부합하도록 여기에는 다양한 경전의 내용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계율과 교학관, 그리고 대중교화 논리를 종합하였다. 따라서 원효가 처한 시대상과 그가 의도한 불교학의 지향점을 탐구할 수 있다.

〈금강삼매경론〉을 크게 부각시킨 〈송고승전〉의 연기 설화에는 신라 중대 왕실과 원효와의 친연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의 상호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왕실의 환우가 생겼을 때, 이를 불식시켰던 인물이 바로 원효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대 왕실은 원효를 정책적으로 절실히 원하였던 듯하며, 원효도 이에 기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금강삼매경〉의 성립배경에는 신라 사회가 희망하는 불교학적 지표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성이 짙은 저술임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경’과 ‘경론’의 중심 이론인 ‘이각원통’ 사상이다. 이는 ‘이타행’에 중점을 둔 논리로서, 대중교화에 매우 유용하다.

원효는 〈기신론〉의 ‘일심·이문’에 의해 거의 대부분의 불교학을 정리하였다. 그 총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금강삼매론〉이며, 그의 사상이 경전화한 것이 바로 〈금강삼매경〉이다. 특히 그는 불교교학의 근본개념으로 ‘일심’·‘일미’에 주목하였다. 이는 제 논리를 높은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상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대승기신론〉의 기제를 크게 환영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기신론〉은 대부분의 불교 교학을 수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구조를 지녔다. 이를 바탕으로 원효가 추구하는 대중교화에 다양한 교학을 부단히 적용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원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공고히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전인 〈금강삼매경〉을 저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연기설화를 시대상과 연관지어 추구해 보았다. 신라사회와 〈금강삼매경〉의 발생을 연결시켜 이해한 것이다. 〈금강삼매경〉 설화에는 신라 전통신앙의 사제인 ‘巫覡’이 등장한다. 직면한 문제에 관해,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경전의 성립배경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무속과 〈금강삼매경〉의 긴밀함을 알 수 있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기제인 ‘이각원통(二覺圓通)’ 사상에 역시 주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실천적인 ‘보살행’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다. 원효의 ‘이각원통’ 사상과 ‘보살행’은 백고좌회 참석승려로 대표되는 기존 불교계와 큰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원효는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제압했다. 이러한 논리는 당시 흥기하고 있던 대중교화승의 활동에 사상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왕실은 이에 승관제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흡수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인물이 바로 원효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원효의 〈금강삼매경〉 찬술설을 타진해 보았다. 그러면서 〈금강삼매경론〉의 중심 구조와 내용을 시대상과 결부지어 규명해보고자 했다.

〈금강삼매경론〉, 원효 교학 결정판
〈기신론〉 핵심구조를 바탕으로 저술
‘이각원통’ 중심… 대중교화에 유용해
“당시 희망한 불교학 지표 담겼을 것”

우선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명칭 및 ‘설주’인 보살의 이름은 원효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으며, ‘경’과 ‘경론’의 유기적 관계와 〈금강삼매경〉의 주석이 원효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원효가 〈금강삼매경〉을 찬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했다.

〈금강삼매경론〉의 구조는 〈기신론〉의 ‘일심(一心)·이문(二門)’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금강삼매경론〉의 ‘일미(一味)’는 〈기신론〉의 ‘일심’에 도달하는 수행법에 해당하며 ‘육품(六品)’은 그 ‘이문’에 대응된다. 세분화된 ‘육품 구조’는 결국 ‘일미’이며 모두 ‘일심’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신론〉의 실천적 변용이 〈금강삼매경론〉임을 확인하였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의 구조 속에서 ‘일승(일미)’ 사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육품’의 차별적 수행을 강조하지만, ‘여래장품’으로의 ‘평등한 회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방편적 차별’과 ‘하나의 깨달음’을 모두 지향하고 있으므로 신라중대 ‘민’의 호응을 얻었을 것으로 보았다.

〈금강삼매경론〉은 ‘일미’와 ‘십중법문(十重法門)’의 양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십중법문’의 다양한 수행은 결국 ‘일미’로 회귀한다. 따라서 ‘일미’의 측면에서 모든 수행법은 통일될 수 있었다. 〈기신론〉이 중생의 심식구조에 대한 일관된 인식(일심)을 추구했다면, 〈금강삼매경론〉은 실천행의 궁극적 합일(일미)을 표방한 것이다. 즉 ‘일미’는 ‘일심’의 실천적·발전적 변용임을 지적하였다. 원효의 일승(일미)사상은 기층민의 성불은 전제함으로써, 대중교화를 독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원효의 ‘이각원통 사상’의 특성을 도출해 보았다. 이는 신흥세력에게 어울릴 수 있는 논리임을 설명하겠다.

〈금강삼매경론〉은 〈기신론〉 가운데 ‘본각’·‘시각’설을 크게 원용했다. 깨달음의 차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수행법을 통해 하나의 ‘깨달음(일각)’에 귀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효는 본각의 역할과 내재된 평등성을 강조함으로써 양자를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효는 〈기신론〉의 논리에서 나아가 중생을 획기적으로 배려하는 수행법을 권장했다. ‘생멸문’에서의 차별상을 ‘십중법문’으로 보았지만, ‘일미관행’이라는 수행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평등론을 주장했다. ‘일각’과 ‘일미관행’은 기층민을 포섭하여 성불의 대열로 이끌려는 원효의 구상이다.

‘이각원통 사상’은 신라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권위의 수식과 결부된다. 사륜계의 등장과 신진 불교세력은 본각의 평등성에 의한 시각의 통합이라는 논리를 환영했을 법하다. 이를 통해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이 표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강삼매경〉과 〈경론〉에 나타난 ‘육품’ 구조의 실천성과 시대성을 탐색해 보았다. 〈금강삼매경〉과 〈경론〉의 육품 구조는, 지적 기반이 없는 최하층 ‘민(民)’을 포괄하는 실천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그의 ‘육품원융 논리’는 통일전쟁기 신라의 기층민은 물론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수렴할 수 있는 획기적 기제였을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금강삼매경〉에 나타난 보살들의 명칭은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개념들과 부합된다. 따라서 원효가 〈금강삼매경〉과 밀접함을 보여준다.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사회적·정치적 입신을 위한 저술로 이해될 수 있다. 원효는 입당좌절 후 겪게 되는 방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과 왕실을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를 위해 아미타 신앙과 ‘육품’ 구조를 이용했으며, 후자를 위해 요석궁과의 혼인이 추진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금강삼매경론〉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효는 〈기신론〉의 핵심구조를 〈금강삼매경론〉에 적용했으며, 나아가 모든 경전에 결합함으로써 대중교화를 적극화 하였다. 특히 원효가 〈법화경〉에 나타난 다양한 방편을 ‘육품’ 구조에 적용시켜 실천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는 불경을 〈금강삼매경론〉으로 풀이한 것으로 새로운 불교사적 지평을 마련한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으로 원효는 자신의 불교학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여 교학논쟁을 야기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려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원효는 당시 삼국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민의 유입과 계층분화로 발생한 민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기신론〉적인 논리를 중시했을 것이다. 〈기신론〉은 상·하층 모든 중생을 배려하는 실천적 논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국통일 과정에서 포함된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학을 아우르는 과정에서도 〈기신론〉은 절실히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백제 고구려 지역에서 다양한 교학을 수학한 승려들이 제불교학과 〈기신론〉의 교리가 담긴 원효의 핵심 저술을 거부감 없이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원효는 대부분의 경전을 〈기신론〉에 입각해 정리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금강삼매경론〉을 완성하였다. 원효는 〈기신론〉체계에 깊이 호응하면서 〈기신론〉 논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전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전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효가 〈금강삼매경〉을 창안하고 〈기신론〉적 논리를 대폭 반영했을 것이다.

〈금강삼매경〉을 주석한 〈금강삼매경론〉의 교학적 포용성은 통일기 여러 계층과 승려들에게 주목받았을 것으로 이해된다. 〈금강삼매경론〉의 특성과 그 역할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자 이병학은?
1972년 서울 출생. 국민대 국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서 석·박사 취득. 금석문연구소 연구원을 지냈으며, 국민대·배제대 등서 불교사 강의. 현재 우송고 역사 교사로 재직 중.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050-2879-8709
문의 010-3629-8709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7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